2025년 7월 7일 | Global Asset Research

신흥국 전략

베트남-미국 관세 협상의 명과 암

베트남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Analyst 김근아 geunak@hanafn.com

베트남-미국 관세 협상 타결, 관세는 46%에서 20%로 완화

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베트남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.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20%의 관세를 부과하고, 베트남을 경유한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%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.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시장을 완전 개방했으며, 항공기와 농산물 등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. 표면적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20~25% 관세 수준으로 합의에 도달해 성공적인 협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, 합의 내용 전반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평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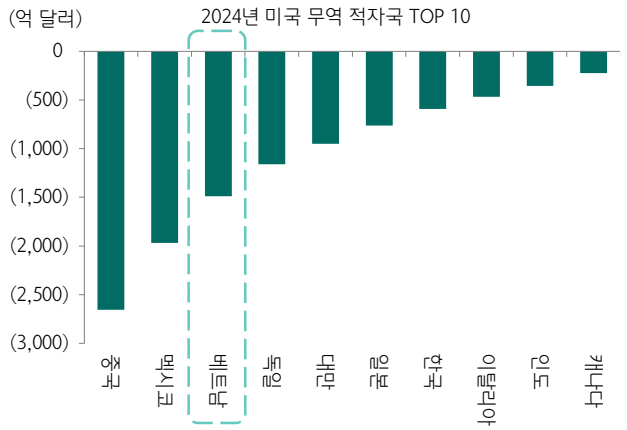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수출 둔화와 보복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

우선, 관세가 20%까지 낮아지긴 했으나 보편 관세(10%)에 비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,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이나 인도 등 대체 글로벌 생산거점의 관세율이 베트남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베트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또한, 베트남의 대미 수출 급증에는 중국의 우회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, 미국이 제3국의 베트남 경유 상품에 대해 40%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우회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. 물론 원산지 증빙과 환적 경로 추적이 복잡하고, 베트남 내 가공무역 형태는 유효하기 때문에 40% 관세의 실효성은 미지수다. 다만, 환적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별개로 20%라는 관세율 자체만으로 이미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을 우회로로 활용할 유인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, 베트남의 대미 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 수출 측면의 불확실성 외에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도에 부합하는 조건을 베트남이 수용한 이상,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상존한다. 중국 정부는 중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합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베트남은 경공업 원자재의 30%, 철강·광물의 54%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, FDI의 56%가 범중화권에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단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대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. 일부 차익실현 후 중국과의 관계 변화 및 미국과 주요 생산거점 국가들의 관세 정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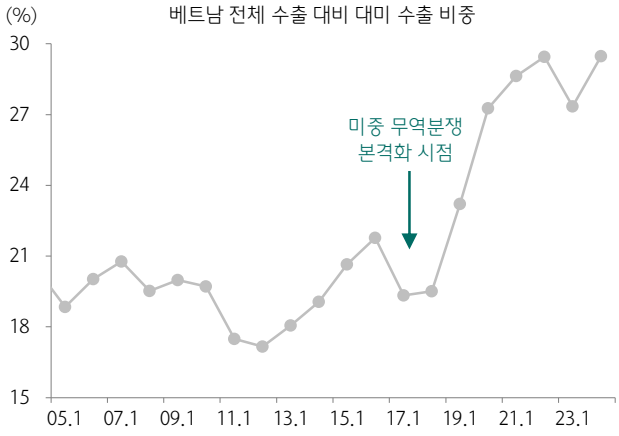
하나증권 리서치센터

도표 1. 미국 무역 적자국 Top 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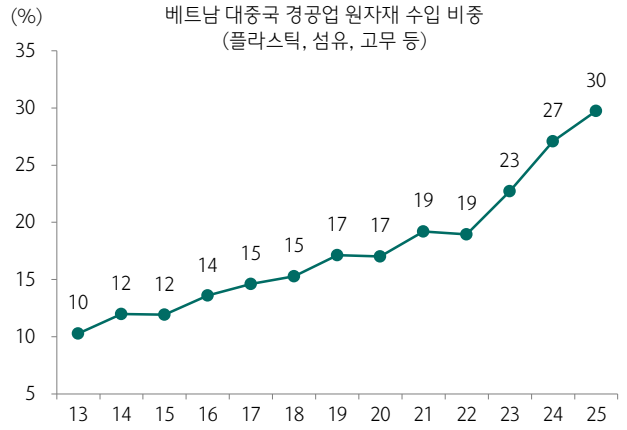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도표 2. 베트남 대미 수출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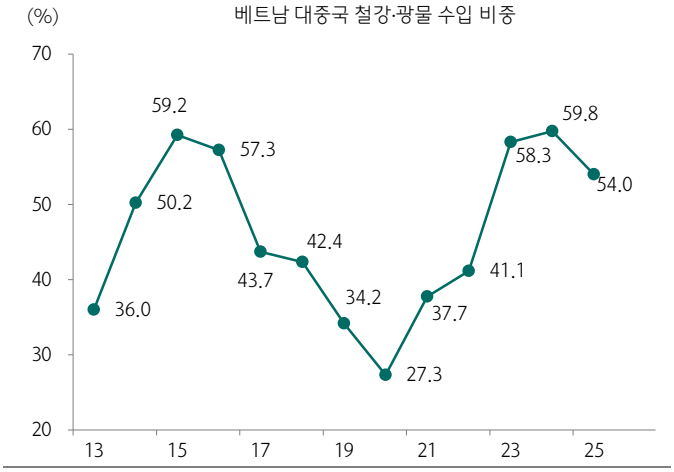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도표 3. 베트남 대중국 경공업 원자재 수입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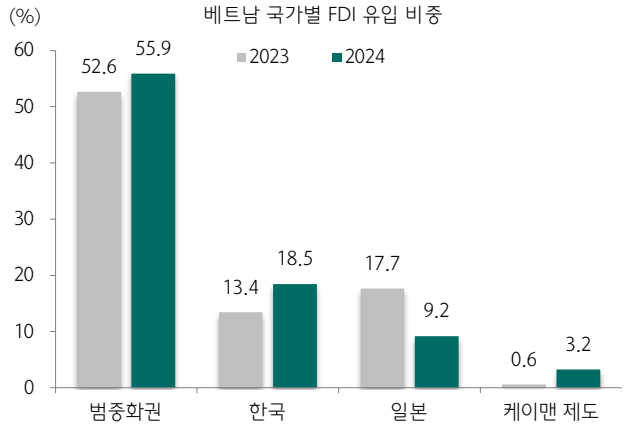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도표 4. 베트남 대중국 철강 및 광물 수입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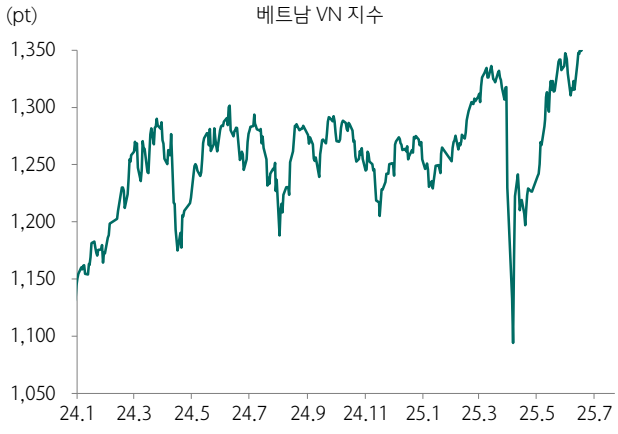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도표 5. 베트남 국가별 FDI 유입 비중


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

도표 6. 베트남 VN 지수



자료: Bloomberg, 하나증권